



계절의 여왕 5월, '滿福' 한 가득 담아

〈만복〉



어머님 품같은 포근함과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는 '부래만복(扶來滿福)'의 고장 부안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오복마실여행이 있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만발하고 푸르른 나뭇잎들이 어여쁜 새싹을 트는 설레임이 가득한 계절의 여왕 5월. 여유와 힐링이 가득한 부안의 거리에는 전통과 역사, 문화, 자연경관이 하나 돼 한바탕 걸판진 흥겨움의 춤판을 벌인다.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5회 부안오복마실축제는 타 지역축제와의 차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두고 그 중심 무대를 부안의 거리로 옮기면서 큰 성공을 거뒀다.

부안오복마실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은 매년 많은 관심과 함께 큰 인기를 얻으며 외국인 관광객들도 적극 참여하는 인기 프로그램이 됐다. 올해는 '위도 띠뱃놀이 재현'과 '부래만복 오복마실 퍼레이드', '부안마실 오복을 받아라', '황금오디를 찾아라' 등이 축제의 흥행을 이끌 계획이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위도 띠뱃놀이 재현은 띠지, 오색기, 허수아비, 띠배 등을 제작해 바다에 띄우는 모습을 재현하는 행사로 부안의 옛 전통문화를 부안의 거리에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체험·연출함으로써 모두가 하나되는 모습이 펼쳐진다.



내달 4일부터 3일간 개최
축제 명칭 '오복' 넣어 정체성 확립
위도 띠뱃놀이·마실 퍼레이드
황금오디를 찾기 등 행사 다채

부래만복 오복마실 퍼레이드는 부안에서 치열하게 펼쳐진 백제부흥을 위한 동아시아 최초의 세계대전인 백강전투를 재현해 동아시아권에서의 부안의 정체성을 찾는 데 집중한다. 매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황금오디를 찾아라는 오디와인 속에서 황금오디를 찾는 게임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코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부안마실 오복을 받아라는 오복 부안마실의 정체성을 담아 부안의 특산물, 먹거리, 즐거움을 주는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이다. 오복나무에 걸린 복주머니에 부안의 특산물과 먹거리 등의 쿠폰을 넣어 놓고 진행요원이 재미있게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한 관광객이 복주머니 속 쿠폰을 받아가는 방식이다.



개막식과 폐막식, 수천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하나돼 장관을 연출했던 대동한마당 등은 대표 프로그램에서 공식행사로 한 단계 발전된 모습으로 치러진다. 부안군은 '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부안오복마실축제 캐릭터 '오복이(자복이, 강복이, 재복이, 휴복이, 풍복이)'를 개발하고 그에 맞는 스토리를 입혀 축제의 정체성 및 의미를 부여하고 관광객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풍복이마당(주무대~서부터미널 광장)에서는 마실 열린음악회와 마실 춤 경연대회, 마실문화공연한마당, 마실 힐링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가 펼쳐진다.

강복이마당(서부터미널~아담사거리)에서는 우리말로 풀어가는 마실여행, 부안군민 공모 체험부스, 부안마실 오복을 받아라, 이화우 매창 환생하다(이매창 전시관 및 트리아트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재복이마당(부안상설시장 주차장)은 세계 마실 퍼레이드, 오복 마실 장터, Show me BUAN(군민이 이끌어가는 동아리 어울림마당) 등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모두가 반신반의하면서 거리축제로의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김종규 부안군수는 '축제는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로 묵시 있게 추진해 성공을 이끌어 냈다.

부안을 주요 거리로 무대를 옮긴 부안오복마실축제는 주민은 물론 부안상설시장 등 인근 상인들의 소통·공감·화합을 이끌어 냈고 거리축제 전환 첫해인 지난 2015년 30만 명(부안군 자체 추산), 2016년 45만 5000여명이 찾아 전국을 대표하는 거리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대한민국 대표축제 진입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올해 부안오복마실축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홍보해 6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대한민국 대표축제 진입의 성공신화를 써간다는 계획이다.

제5회 부안오복마실축제는 '군민의 행복마실, 국민의 오복마실'을 슬로건으로 5개 분야 총 4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기획한다는 자세로 프로그램별 신선함을 더했으며 축제 운영에 있어서도 개선점을 마련해 축제의 완성도를 높였다.

축제 명칭에 오복을 넣어 정체성을 확립했으며 주요 주차장에서 본 행사장까지 전동열차 운행으로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군민과 관광객 중심의 참여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했으며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팔도장터 관광열차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방안도 수립했다.

휴복이마당(오정주차장)은 가족놀이터와 응답하러 추억마실, 천년의 빛깔 마실 청자체험, 2023 세계잼버리를 잡아라 등이, 자복이마당(물의 거리)에서는 맑은물총페스티벌과 추억의 오복마실 운동회 등이 축제의 재미를 더한다. 부안오복마실축제 캐릭터인 오복이를 활용한 다양한 공연도 이색적이며 위도 띠뱃놀이 재현행사도 부안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이다.

부안의 거리에서 장병과 학생들이 펼치는 플래시몹 공연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전국 우수 농악 공연을 볼 수 있는 농악경연대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부안오복마실축제에서 대표 프로그램 만큼이나 큰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연계 프로그램이다.

감자와 수산물 등 부안의 특산물은 물론 이매창, 고은 이등원 선생까지 부안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할 수 있어 학생들의 현장학습에서 매우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부안의 맛을 전국에 알리는 제2회 부안 음식 맛 경연대회와 부안 출신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시인 이매창을 기리는 매창문화제, 부안농악의 전성기를 이끈 고은 이등원 선생 추모 전국농악경연대회, 부안의 청정 갯벌을 체험할 수 있는 용궁의 스파이를 찾아라 등은 매년 큰 사랑을 받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또 부안특산물인 동진감자를 수확할 수 있는 하늘선물(감자) 수확 체험과 부안의 다양한 수산물을 즐길 수 있는 와글와글 시장장터 등도 오복을 누리고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땅 부안을 전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안=이복수 기자

부안마실축제에 오시면 오복이 가득합니다.
www.buanmasil.com

"어화세상벗님네야~ 복받으러마실가세~"

2017.5.4(목)~5.6(토)

부안 마실축제

제5회

*주관_부안마실축제전위원회
*축제주최장_부안예술회관(전북 부안읍 예술회관길 11)
전북 부안군 일원(주행사장:부안읍)